

협회 소식

◆ 80년 춘계세미나 4월19일 개최

AFCMA준비를 위해 연합총회

금년도 춘계세미나와 정기총회가 4월 19일 가톨릭의대 강당 (종로구 경운동)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세미나에는 가톨릭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가 같이 참가하게 된다. 23번째가되는 이번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각지구 기관별 조직활동 현황 보고가 있고 오후 2시부터는 가톨릭의료인의 역할을 주제로한 패널디스커션이 있다. 이어서 4시부터는 오는 8월 3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제 7차 아세아 가톨릭 의학총회 준비토의와 각 협회 총회가 개최된다.

◆ 亞細亞가톨릭醫學會 서울 개최

大會長에 가톨릭醫大 曹圭常 學長

제 7차 아시아 가톨릭의학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80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대회를위해 한국가톨릭 醫療團體에선 曹圭常씨 (가톨릭醫大學長 現아시아 가톨릭의학협회회장)을 대회장으로 朴龍輝씨 (가톨릭醫大교수)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동협회에는 한국을비롯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일본, 자유중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홍콩 등이 가입되어 있는데 총회는 매 4년마다 한번씩 개최된다.

曹圭常 대회장은 이번총회의 주제를 [아시아에 있어서의 가톨릭의료의 역할]로 채택하고 산하에 조직, 학술, 섭의위원회를 두고 가톨릭병원협회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협회를 각각 참여시켜 이번총회에 만전을 기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전회원국에서 약 1백여명의 외국인과 2백명의 국내회원이 참가할 예정인데 지난 2월 1일 개최한 준비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 7 차 아세아 가톨릭의학총회

준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80년 2월 1일 오후 6시

장 소 :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관

참석자 : 김창렬, 정일천, 손영수, 최상선, 김대균, 김중호, 최한웅, 정종원, 강준모, 엄승만, 박천학, 최평화, 안용팔, 김춘열, 팡기석, 고광옥, 이중훈, 조성훈, 방용자, 최보배, 김영숙, 조규상, 박용휘,

1. 개회사 : 박용휘 사무총장
2. 인 사 : 조규상 준비위원장

아세아 가톨릭의학회는 1960년 마닐라에서 창립되어 1962년에는 월남사 이공에서, 1964년에는 인도 봄베이에서, 1968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1972년에는 방콕에서, 1976년에는 홍콩에서 열렸으며 1980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아시아 가톨릭의학회의 지부로서 4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72년, 76년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참석하였으며, 세계대회에도 참석한바 있다.

이번 서울 Congress의 테마는 "Catholic Roles in Health Care in Asia"로 정하였으며 아세아 지역 가톨릭의사들이 서로 하고있는 일을알고 또 하여야 하는 일들을 토의하여 상호 협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회에 지역별 기구를 조직강화하여 가톨릭의료인들이 서로 알고 또 할일의 방향을 설정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준비위원으로는 각 지구회장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조직위원으로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병원협회에서, 학술위원은 각 대학을 중심으로 의사협회에서, 섭의위원은 간호협회에서 맡도록 하였다. (별첨 명단 참조)

3. 아세아 학회 준비 경과보고 : 박용휘 사무총장

- 1) 기간 : 1980년 8월 31일 - 9월 5일
- 2) 장소 : 서울 신라호텔
- 3) 주최 : 한국 가톨릭의사협회, 한국가톨릭병원협회와 한국 가톨릭간호협회 공동으로 주최한다.

4) 개최미사로 시작하여 4 Session의 발표가 있고 폐회미사로 끝남. Session 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Country Reports

- (1) 가톨릭의료 인구 파악
- (2) 가톨릭의료 기관과 기구의 활동상태

2. 교육기관, 병원, 농촌, 도시, 자선단체 등에서 가톨릭의료인과 기구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3. 가톨릭의료인과 기구가 앞으로 할일과 목표

4. 각 나라의 조직강화와 국제협력관계.

- 5) 참가비 : 회원 \$ 40
동반자 \$ 20

6) 숙소 : Retreat house \$10, Single \$34, Twin \$42

7) 필리핀, 일본,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100여명의 외국인회원 참석 예상이며 국내회원 200명을 계획하고 있다.

4. 토의사항

○ 국제회의 예산을 1,500만원으로 세우고 있는데 참가자의 회비만으로는 모자라므로 각 지구, 단체, 병원협회, 간호협회등의 지원이 요청된다.

현재 외국의 지원도 요청중에 있다.

○ 각 지구위원회가 이번 기회에 조직을 강화하여 협조 하도록 하자.

○ 대회에 실제로 참석할 회원확보와 재정확보의 2가지 면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 홍보수단을 이용, 널리 알려 많이 참석하도록 하자.

5. 결의사항

○ 4월 하순경에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 병원협회, 가톨릭간호협회 3단체가 공동으로 총회를 갖는다.

○ 총회때까지 각 지구(가톨릭의사회 지부, 가톨릭병원, 대학병원등) 조직을 강화하여 회원명단을 작성하고 현재 활동상황과 의료방향등을 발표할수 있도록 하자. (이를 종합하여 아세아학회때 발표할 우리나라 Country Report가 되게 한다)

○ 회원들의 년회비를 총회시 건도록 한다. (년회비 3,600원)

○ 홍보관계는 사무국에서 맡아 널리 알리도록 한다.

○ 국제학회를 위한 재정문제, 참가자 문제, 연사등은 총회때 다시 토의하기로 한다.

제 7 차 아세아가톨릭의학총회

준 비 위 원

고 문 : 김창렬 신부 기창덕 박동철

자문위원 : 정일천 명예회장

- 최상신 신림성모 의원장
- 윤덕선 성심유지 재단이사장
- 김중호 신부
- 최한웅 서울 지구회장
- 김봉호 전주지구 회장
- 강준모 부산지구회장
- 엄승만 청주지구회장
- 임광세 중앙의대교수
- 서택환 춘천지구대표
- 윤규옥 목포지구대표
- 손영수 내과원장
- 김석환 중앙병원장
- 김대군 신부
- 이성관 교수
- 정종원 인천 지구회장
- 서명길 마산지구회장
- 이기석 대전지구회장
- 박천학 광주지구회장
- 최평화 고려의대교수

안치열 경희의대교수

조직위원 : 안용팔 (위원장), 조영선, 김재호, 김
춘열, 조진희

학술위원 : 황기석 (위원장), 고광욱, 이종훈, 조
성훈, 김동집

섭외위원 : 이춘원 (위원장), 방용자, 최보배, 김
영숙

준비위원장 : 조규상 협회장

사무총장 : 박용휘 총무부장

사무담당 : 김은경

◆ 「臨終」주제 세미나 가져

79년 추계세미나 春川에서

지난 10월 19, 20일 양일간 춘천세종호텔에
서 「임종」을 주제로 열린 가톨릭병원협회 제22회
세미나에는 협회장 김창렬신부를 비롯 서울 부산
대구 춘천등 전국에서 60여명의 회원병, 의원 대
표들이 참가,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논의했다.

세미나는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 가톨릭의
료인들은 각분야별로 소임을 다하면서 편안한 임
종을 도우는것이 최선이라는데 의견을합쳐하고 경
험할수는 없으나 명약관화한 「죽음」에 대해 긍정적
인 수용과 방법등이 논의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결론 지었다.

첫날 세미나에서 「완벽한 임종을위한 준비」를
발표한 李仁福교수 (숙명여대)는 『적극적인 투
병자세와 긍정적인 임종수락과 자신이 죽은이후 그
가족이 당면할 죽음이후의 질서세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완수하여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
에게 깊고 높은 차원의 지혜와 감동을 이입(移入)
시켜주는 종말』을 완벽한 죽음으로 정의한 릴리
핑크스여사의 정의를 인용, 죽음도 탄생과 마찬가지로
삶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를 올
바르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들 생애의
가장 본질적인 과정이 돼야만한다』고 강조했다.

송진원박사 (가톨릭의대 신경외과장)는 「임
종환자에대한 주치의의 할일」에서 만성경과 아급
성경과 급성경과 환자에따라 주치의의 역할이 구
분되어야한다고 지적하는한편 불가피할 경우 안락사

를 시킬수있는 방법의 허용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
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金玉姬수녀 (지산 간호전문대)는 「임
종환자를 위한 간호원의 정신적배려」라는 연제에
서 임상경험의 결과나 여론조사연구에 의하면 『간
호원의 임종환자에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
적, 간호원들이 임종환자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태
도면등에 시정돼야할 사항을 지적했다.

한편 서요셉신부 (가톨릭의대 교목실장)는 「죽
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크리스찬」에서 죽음에대한
크리스찬의 가장 이상적인 태도는 『죽음을 통해서
만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관을 얻을수있다는
사도 바오로같은 확신』이라고 언급, 우리는 죽음
에 의해서만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목적을 달성
할수 있다는것을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회원병원 소식 ◆

◆ 「나병의 完全退治」에 注力

—나사업가 聯定總—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연합회는 대망의 80년대
를 맞아 「나병의 완전퇴치」를 내걸고 그첫해에
는 이동계몽반을통한 나병의 대중순회계몽과 병
행, 정착장 주민들의 자립을위한 각종지원을 증대
키로 하고 릴리회의 효과적인 육성방안등을 모색
했다.

전국의 가톨릭계 구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가운
데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칠곡 피부와
병원 신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3차 연합회 정기
총회는 정관을 개정하고 새임원을 선출했다.

또한 총회는 지난해 봄 엠마회장이 5.16민족상
을 수상함으로써 나병대중계몽과 릴리회 보급확대
에 큰효과를 거두었음을 감안, 금년도에도 매스
콤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병대중계몽과 릴리회회원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신앙교육 자립정신교
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도
모기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개선·보강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총재주교=윤공회대주교 ▲ 회장=엠마프라이징거 (유임) ▲ 부회장=김창석신부 (유임) 이경재신부 (신임)

◆ 가톨릭看協支部 結成추진

교구별로 서울등 6개지부 결성

한국 가톨릭 간호협회 (회장 이춘원수녀)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회장단 및 임원 회의를 개최, 가톨릭간호협회가 협의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지부를 빠른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부결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논의, 결정했다.

이날 임원회의는 서울을 비롯, 대구 부산 광주 대전등 5개 교구내에 간협지부를 결성토록 한다는 것을 주요안건으로 채택, 지부결정을 위한 기초및 준비작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날회의는 각구교병·의원 학교 보건소 및 간호경력이 있는 간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지구협의 회회칙을 수정, 사용토록 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한편 전국본부는 각지부협의회 발족에 따른 제반지 원작업을 적극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현재 교구단위로 지부조직이 끝난 지부는 서울, 부산, 수원, 인천, 광주, 대구등 6개교구이다.

◆ 仁川가톨릭醫師會 發足

仁術로 사랑실천에 앞장다짐

인천교구 가톨릭 의사회가 지난 12월 2일 담동성당 사제관 2층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서울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대전 마산에 이어 여덟번째로 발족했다.

교구내 신자의사 25명이 중심이되어 발족된 의사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① 매년 2회씩 교구내 의료취약지구를 무료진료한다. ② 본당사제가 의뢰한 환자에 우선적으로 의료혜택을 준다. ③ 회원 1인이 1년동안 20명의 무료진료권을

발부, 책임지고 진료한다는등 의술을 통한 봉사활동에 초점을둔 정규사업을 확정지었다.

총회는 이밖에 가톨릭적 자연가족계획을 확대 보급키 위해 교육과 계몽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가나강좌를 적극 지원하는등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적극 수행해 나갈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는 회장에 전종원 (다미아노·주안성심의원장) 씨를, 부회장에 우광균 (안드레아) 강북면 (루시아) 씨를 각각 선출했다.

◆ 極貧者에 醫療奉仕다짐

부산가톨릭醫師會 臨終

부산 가톨릭의사회 (회장 강준모)는 지난해 10월 1박 2일동안 오륜대 명상의 집에서 제 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부산 가톨릭의료인협의회 결성등 5개항에 달하는 활동지침을 심의통과 시켰다.

의사회 발족이래 처음으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정을 겸해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① 냉담 회원들의 가정방문 ② 극빈자대상의 정기적인 의료봉사활동 ③ 신심앙양 피정 ④ 10월중 가톨릭 약사회와 간호원회 설립의 중개역할 ⑤ 부산 가톨릭의료인 협의회 결성등 5개항을 결의했다.

한편 의사회원 부인들도 참석한 파견미사에서 이갑수주교는 강론을 통해 『인간생명의 존귀함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상호협력, 복음전파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사회는 총회후 우정의 파티시간을 갖고 상호 우정을 돈독히 했다.

◆ 나환자 定期순회 치료

부산성분도병원 전경근 치과과장

부산 성분도병원 전경근치과과장은 산청 성심인애병원 (원장: 김창남수사)을 매월 1회씩 방문하여 나환자에 대한 치과부문 치료를 하고있다. 전경근씨는 197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 인원 360여명에 대하여 치과진료를 실시하였다. 한편 나병에 대한 올바른 계몽의 일환으로 많은 인사들을 초청하여 보건지도에도 힘쓰고 있다.

◆ 全職員 대상 研修會 실시

가톨릭中央醫療院 3월부터 開催

가톨릭中央醫療院은 산하 부속기관의 교직원 1천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CMC가족단합연수회」라는 이름으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연수는 매주 금요일 오후까지 2박3일동안 수유리소재 「고난의 집」에서 갖는데 교직원간의 정신유대, 일체감조성등의 강과가 실시된다.

◆ 江南聖母病院 5월 3일 개원

기재설치등 준비작업 진행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현재 강남구 반포동 산35-1번지에 신축중인 지역사회 종합의학센터 강남성모병원 병동신축이 완공되어 오는 5월3일을 개원일로 잡고 강남병원에 근무할 스텔과 직원 충원을 끝내고 새로 도입한 의료기재설치 작업을 진행중이다.

강남 성모병원은 지난 77년 8월 31일 착공 했는데 대지 3만 4천평, 연건평 9천평 (지상 10층 지하 2층)으로 520병상을 설치하고 있다. 특수 시설과 최신 의료장비로는 에어슈터, 각종사고자동제어장치등의 특수설비를 갖추며 ▲전산화종합검진장치 ▲ 각종 최신초음파진단기 ▲ 1천밀리암페어 X선촬영기 ▲ CT ▲ 감마카메라 ▲ 전신CT스캔 ▲ ECG 자동분석기 ▲ 자동혈액 화학분석기 ▲역상조직배양현미경 전자식세포계산기 ▲ 자동 병리조직표본제작시스템등 특수의료기구가 가동된다.

◆ 가톨릭중앙의료원 대폭 人事移動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5월 3일의 강남 성모병원 개원에 즈음, 대폭적인 기구개편과 인사를 단행 명동 성모병원장에 李容珪교수(외과과장), 새로 개원하는 강남 성모병원장에 송진언교수(신경외과과장) 그리고 성모병원장 조영선교수를 산재병원장에 임명했다.또 기구개편에 따라 중앙의료원 기획실

에 이승한 교수(전 산재병원장), 관리실장에 김대군 신부를 임명했다.

◆ 한국 순환기센터 開院

—성바오로병원—

심장질환을 전문치료하는 韓國 瘵器센터가 지난 1월 28일 문을 열었다. 가톨릭醫大 부속 성바오로병원 부설기관으로 문을연 한국 순환기센터는 순환기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診斷과 治療를 맡는데 우선 내과 영역부터 진료업무를 개시한다.

◆ 가톨릭종합병원 금년봄에 개원

지상 6층 240개병상

대구시 남구대명동에 건립중인 대구가톨릭종합병원이 80년 4월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연건평 5천 6백 27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에 3천 6백 27평의 건평으로 2백 40개의 병상이 지어진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한 동병원은 최신식 의료장비를 도입하게 된다.

◆ 크리스마스 캐롤 競演大會了

가톨릭 中央醫療院 機關別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산하기관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각기관별 크리스마스캐롤 경연대회를 지난 12월 22일 오후 2시 명동 문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성모병원, 醫學部, 산재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등 CMC 직속기관이 참가했는데 합창단은 全職員을 대상으로 혼성팀으로 출전했다.

약 350여명이 참가한 이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산재병원 합창단, 우수상은 성모병원합창단이 차지 했는데 경연대회가 끝난후 각테일 파티가 있었다.